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의 경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김 호**

Issues and Analyses on Management Situation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Organizations

Kim, Ho

This study analyzed the management situation of two organizations that have produce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One organization sells and processe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like as grains, vegetables, fruits and processing foods. Another organization processes and sells environmentally friendly livestock products, specially beef products. Indices of management analysis are stability ratio, activity ratio and profitability ratio. Stability ratio indices are debt ratio, net worth ratio, fixed ratio and current ratio. Activity ratio ones include fixed assets turnover and net worth turnover. And profitability ratio is showed through return on investment, net return on sales and return on equity.

Key words : *management situ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organization, Indices of management analysis*

I. 서 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2015년에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약 46만 톤이었는데, 2017년에는 약 49만 6천 톤이었다. 2016년 대비 2017년에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3.1% 증가하였고, 무농약 농산물은 17.0% 감소되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친환경농가의 소득 메리트와 가격프리미엄 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 이 연구는 2017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hokim@dankook.ac.kr)

반면에 친환경축산물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생산량은 약 83만 톤이었는데 2016년에는 약 106만 톤, 2017년 약 133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의 경우, 유기축산물은 2.9%를 차지하였고 무항생제 축산물이 97.1%이었다. 특히 친환경 쇠고기는 2015년에 약 3만 8천 톤, 2016년에는 약 4만 톤, 2017년 약 4만 6천이 생산되었다. 2017년 유기쇠고기 비율은 0.4%이었고 무항생제 쇠고기는 99.6%로서 무항생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축산물(쇠고기)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조직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경영분석 지표로서 경영안정성과 경영활동성, 수익성 등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즉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서 2개의 사례조직을 선정하였다. A영농조합법인은 곡물류 및 청과물과 가공식품을 생산·유통하는 조직이고, B식품은 친환경 쇠고기를 가공·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두 조직은 동일한 생산자회원의 생산물을 취급하고, 출자 등을 통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생산자회원과 계약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두 조직의 연도별 재무제표를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조직의 임직원과 면접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증하였다.

II. 경영분석 지표

사례 조직의 경영성과에 대해 경영안정성(stability ratio), 경영활동성(activity ratio), 수익성(profitability ratio)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안정성으로는 부채비율(debt ratio)과 자기자본비율(net worth ratio), 고정비율(fixed ratio), 유동비율(current ratio)을 살펴보았다. 경영활동성으로는 고정자산 회전율(fixed assets turnover), 자기자본 회전율(net worth turnover), 수익성은 총자본 이익률(return on investment), 순매출 이익률(net return on sales), 자기자본 수익률(return on equity)에 대해 분석하였다(www.kipf.re.kr; Kim, 2012).

먼저, 경영안정성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은 기업자본 구성의 안전도, 특히 타인자본 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다. 산식은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액)×100이다. 그리고 자기자본비율은 기업 자본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이다. 산식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100이다. 또 고정비율은 자본의 유동성을 나타내는데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도가 높은 회사이며, 100% 이하가 이상적이다. 즉 고정자산은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자산회수에 비교적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타인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식은 고정비율=(고정자산/자기자본)×100이다. 유동비율은 회사의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지표로서, 200% 이상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본다. 산식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다.

둘째, 경영활동성에 있어 고정자산 회전율은 고정자산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비율로서 기업자본의 이용도를 나타낸다. 만일 이 비율이 높으면 고정자산에 투하된 기업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율이 낮은 경우는 설비운용의 비능률 또는 고정자산에 대한 과대투자로 고정비가 증가하여 수익성과 유동성이 저하됨을 나타낸다. 산식은 고정자산 회전율=(순매출액/고정자산)×100이다. 그리고 자기자본 회전율은 자기자본의 회전속도를 의미하며, 자기자본의 활용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수익성 증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비율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는 외상매출의 과대현상 또는 자기자본의 과소현상이라는 재무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산식은 자기자본 회전율=(순매출액/자기자본)×100이다.

셋째,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본 이익률과 순매출 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자본 이익률은 사용한 총자본이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식은 총자본 이익률=(당기순이익/순자본)×100이다. 순매출 이익률은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낸 것이고, 산식은 순매출 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이다. 그리고 자기자본 수익률은 주주의 투자 판단 근거가 되며, 산식은 자기자본 수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이다.

Ⅲ. 경영실태 분석

A영농조합법인은 2000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말 현재 조합원은 350명이다. 매출액은 약 301억 원으로서 2010년~2017년 연평균 성장률은 3.5%이다. B식품은 친환경 쇠고기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며 2008년 6월에 69명의 주주로 창립되었다. 2017년 말 매출액은 약 71억 원으로서 2010년~2017년 연평균 성장률은 10.5%이다.

두 조직은 모두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고 있으며, 출자 및 조합원이 상호 중복될 뿐 아니라 A영농조합법인이 주요 주주로서 B식품에 출자하였다. A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곡물류, 청과물류 등의 유통과 두부 및 두유 등 콩 가공식품의 생산·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B식품은 친환경축산물(쇠고기)의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회

Table 1. Changes of total sales

(Unit : million won)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 Farming corporation	23,931	26,588	25,940	28,587	29,540	30,135	29,464	30,128
'B' Food corporation	3,736	3,820	3,575	5,160	5,955	5,826	6,326	7,060

Sources :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사법인이다. 동일한 생산자연합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다. 따라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두 법인에 대한 경영실태를 분석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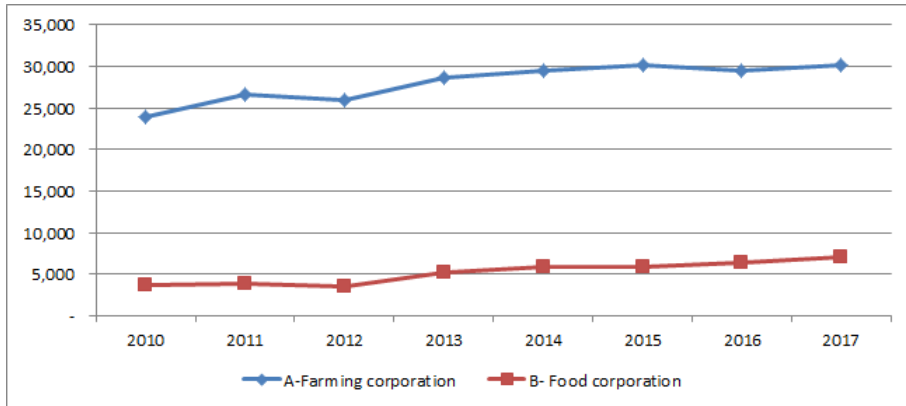


Fig. 1. Changes of total sales.

1. A영농조합법인

1) 경영안정성

경영안정성에 관한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유동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Table 2). A영농조합법인은 2013년과 2014년을 기점으로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다소 호전되고 있다. 부채비율을 보면, 2014년과 2015년에 매우 악화되어 각각 204.1%와 228.5%를 나타내고 있다. 즉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표준비율인 100% 이하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A영농조합이 2014년에 식품가공공장을 신축 이전하면서 대규모의 외부자본을 차입한 데에 있다. 향후 부채차입은 가급적 자제하고, 출자 증대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자본비율도 2014년 이후 회복되고 있으나, 표준비율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정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자본의 유동성이 매우 낮다. 고정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

Table 2. Changes of stability ratio

(Unit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Debt ratio	135.5	68.5	144.8	204.1	228.5	198.0	178.6	169.7
Net worth ratio	42.5	59.4	40.8	32.9	30.4	33.6	35.9	37.1
Fixed ratio	121.6	119.8	119.7	132.9	184.3	176.0	172.8	168.1
Current ratio	119.0	582.7	94.4	89.9	79.8	93.7	99.2	108.2

인데 2017년에 168.1%이었다. 그리고 유동비율은 2017년 108.2%로서 이상적인 기준인 200%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불리한 상태이다.

2) 경영활동성

경영활동성 지표인 고정자산 회전율과 자기자본 회전율에 대해 살펴보았다(Table 3). 전체적으로 2014년 과잉투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고정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매출액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2011년에 고정자산 회전율과 자기자본 회전율이 매우 낮은 것은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기농 쌀의 과잉생산에 의한 출하 적체에 원인이 있다.

고정자산 회전율은 2014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자산에 투자된 기업자본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4년의 과잉투자에 따른 설비운용의 비능률과 고정비의 증가로 수익성과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자기자본 회전율이 높으면 수익증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A영농조합의 경우에 자기자본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기자본의 과소현상이라는 재무위험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Table 3. Changes of activity ratio

(Unit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Fixed assets turnover	372.3	68.7	342.4	349.9	294.4	250.4	154.6	225.9
Net worth turnover	450.2	85.9	382.7	461.8	459.8	433.8	393.2	368.9

3) 수익성

수익성 지표인 총자본 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은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Table 4). 사용한 총자본에 대한 이익률을 나타내는 총자본 이익률은 2010년 5.5%에서 2014년 0.9%, 2017년 0.7%로서 저하되어,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 순이익률 또한 2011년 6.4%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하락 추세이며 2017년에는 최저 수준인 0.5%이었다. 자기자본 수익률도 2010년 13.8%에서 2017년에는 최저 수준인 1.9%까지 떨어졌다.

이같이 수익성이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된 것 또한 2014년의 과잉투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2014년의 총자본 이익률은 0.9%, 매출액 순이익률 0.6%, 자기자본 이익률 2.9%로서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A영농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Table 4. Changes of profitability ratio

(Unit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Return on investment	5.5	3.3	3.9	2.9	0.9	2.0	1.0	0.7
Net return on sales	3.1	6.4	2.5	1.8	0.6	1.4	0.7	0.5
Return on equity	13.8	5.5	9.6	8.2	2.9	6.0	2.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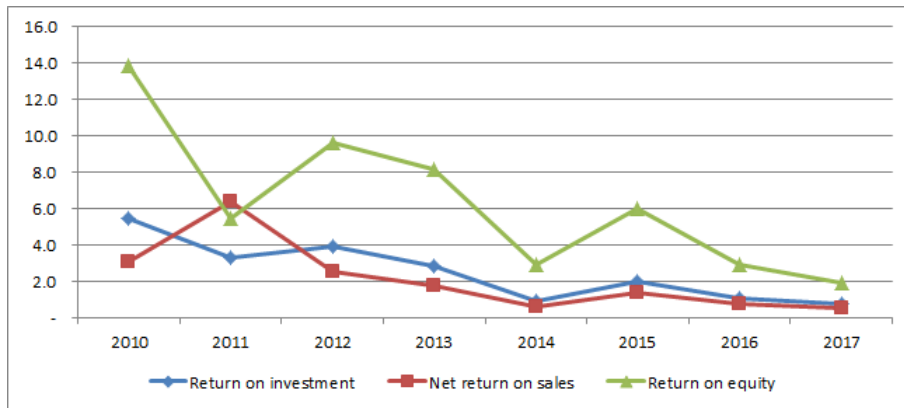


Fig. 2. Changes of profitability ratio.

2. B식품

1) 경영안정성

B식품은 유동비율을 제외하고 다른 지표 모두 양호하였다(Table 5).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서 건전한 편이지만,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90.2%와 81.5%로서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2010년~2017년 8개년 평균 61.4%로서 일반적 표준비율인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한 재무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고정비율 또한 2010년~2017년 8개년 평균 65.9%로서 안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유동비율은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114.5%와 2016년 220.5% 등을 제외하고 300%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0년~2017년 8개년 평균 318.7%이었다. 이처럼 유동비율이 높은 원인은 재고자산(유기 및 무항생제 한우 원재료)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B식품은 한우사육 농가회원과 계약생산을 하고 있는데, 소의 사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위해 다량의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회원농가의 차기 출하량을 예측하여 재고자산의 처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able 5. Changes of stability ratio

(Unit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Debt ratio	84.1	60.2	58.8	50.4	45.5	46.1	90.2	81.5
Net worth ratio	54.3	62.4	63.0	66.5	68.7	68.5	52.6	55.1
Fixed ratio	87.8	73.8	74.6	63.8	62.0	57.2	56.4	51.6
Current ratio	114.5	427.4	379.3	371.5	365.5	300.0	220.5	371.0

2) 경영활동성

B식품의 고정자산 회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서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able 6). 2010년 420.2%에서 2014년 698.1%, 2017년에는 850.6%이었다. 그리고 자기자본 회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수익증대의 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Table 6. Changes of activity ratio

(Unit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Fixed assets turnover	420.2	447.3	412.3	583.7	698.1	703.3	751.3	850.6
Net worth turnover	377.4	336.0	298.4	377.2	443.4	404.1	415.1	456.1

3) 수익성

총자본 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Table 7). 소 출하주기에 따라 수익성 지표도 주기성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 생산된 소가 일시에 출하되기 때문이다. 출하된 소는 전량 매입한다. 따라서 일시에 매입한 쇠고기가 수요보다 많아 이를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농가별로 생산주기를 달리하여 매입량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총자본 이익률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보면 2013년 8.6%, 2012년 2.6%이었다. 2010년~2017년 8개년 평균은 5.9%이었다.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주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2%로 최저치를 나타냈고 2011년에는 3.9%로서 최고치이었다. 소 생산시기의 조정을 통해 B식품의 당기순이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자기자본 수익률 2010년~2017년 8개년 평균 9.0%로서 경영 상 문제는 없으나 연도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Table 7. Changes of profitability ratio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Return on investment	7.2	8.1	2.6	8.6	3.9	7.9	5.8	3.0
Net return on sales	3.0	3.9	1.4	3.3	1.3	2.7	2.3	1.2
Return on equity	11.3	12.9	4.1	12.4	5.8	11.1	9.6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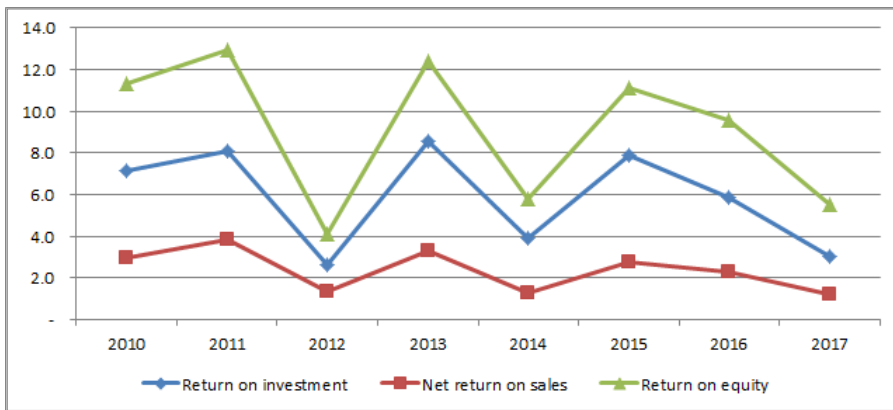


Fig. 3. Changes of profitability ratio.

IV. 시사점

A영농조합법인의 경영실태 분석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안정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2014년의 과잉투자에 원인이 있다. 2014년의 과잉투자가 A영농조합법인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당분간 급하게 요구되지 않은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 투자자본을 외부에서 차입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자기자본의 충당을 위해 생산자회원으로부터 출자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경영활동성 지표 또한 2014년 과잉투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매출액의 증대를 통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고정자산에 투자된 자본의 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나치게 높은 자기자본 회전에 따른 재무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수익성 지표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 순이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마케팅 전문가의 영입 또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현재의 학교급식 공급량을 늘리고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매출의 증대를 기해야 한다.

B식품의 경영실태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안정성 지표 중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00% 이하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건전하였다. 그런데 원료 쇠고기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 유동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송아지 입식 시기를 분산시켜 연도별 출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영활동성에 있어 고정자산 회전율과 자기자본 회전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자본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재무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2017년 매출액이 약 71억 원으로서 2010년 약 37억 원의 1.9배 정도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를 고려한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수익성 지표인 총자본 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등이 주기성을 보이고 있어 연도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계약농가의 사육시기를 조정하여 수익성 지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증대를 통해 수익성 지표를 일정하게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

[Submitted, October. 22, 2018 ; Revised, November. 22, 2018 ; Accepted, November. 26, 2018]

References

1. Kim, H. 2012. Implications and Analyses on the Management Situation of a Consumer's Cooperative.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24(4): 385-391.
2. Kim, H. 2013. A Case Study on Management Situations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and Its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21(3): 321-334.
3. Kim, O. Y. and H. Kim, 2016. A Case Study on Operating Situations of Environment-friendly School Food Service Center managed directly by Local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24(1): 45-59.
4. KIPF. 2012. Finance Analysis.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nline at www.kipf.or.kr). Accessed 11 June 2012.
5. Pugundle and Handle.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6. www.naqs.go.kr